



2026. 5. 28 (목)

조선/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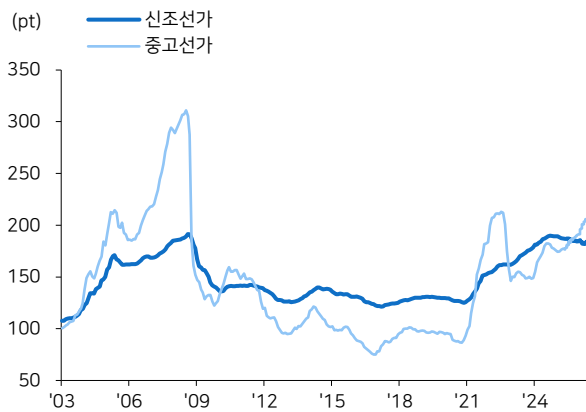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9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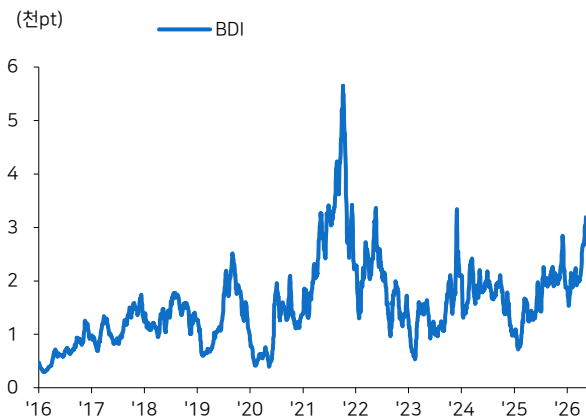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6.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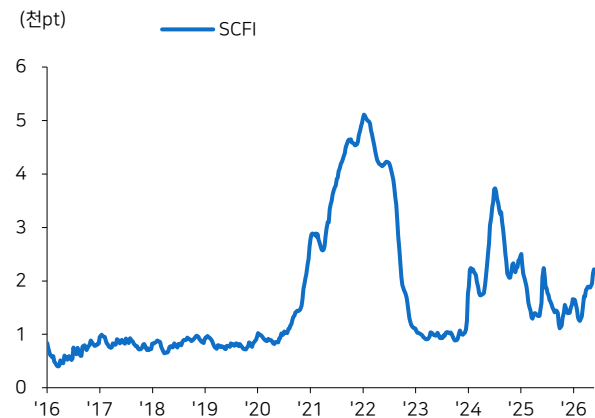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085.0p (+9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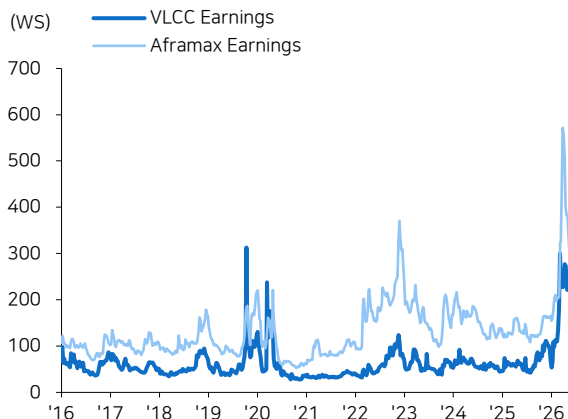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218.2(+77.5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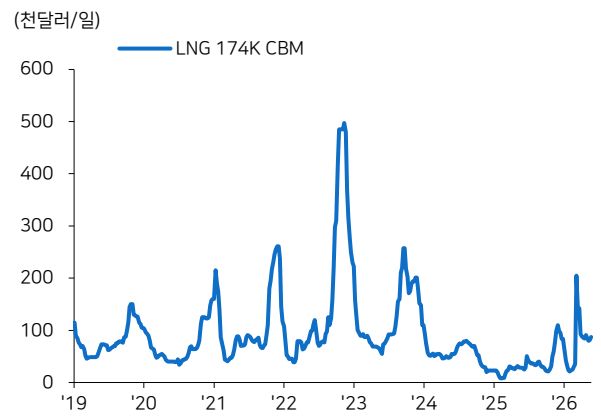
VLCC Spot Rate

218.4WS (-4.6p WoW)



LNG Spot 운임

87.5천달러 (+5.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오션, 핵잠 설계 올해 마무리 (아시아경제)

<https://zrr.kr/01FCg1>

한화오션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사업의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정부는 설계 진척에 따라 2030년대 중반에 1번 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며, 사실상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국내 건조를 추진할 전망이다라고 알려짐.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핀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 여지가 있는 가운데, 필리핀조선소는 핵잠 건조 경험이 없고 전용 설비나 차폐 구조 등 인프라가 미비해 실제 미국 내 건조 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도됨.

Wärtsilä to further expand its technical production capacity by an additional 30% to meet the growing global demand in the energy and marine industries (Wärtsilä)

<https://zrr.kr/jB2VRI>

Wärtsilä가 핀란드 바사에 위치한 지속가능 기술 허브(STH) 및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 역량을 30% 추가 확대하기 위해 약 9,000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전해짐. 이번 투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35% 증설 계획에 더해져 025년 대비 총 생산 역량은 65% 증가하게 되며, 각각 2028년 1분기와 2029년 1분기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이번 증설은 전력 소비 증가와 데이터센터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수요, 그리고 탈탄소 규제 및 연료 효율성 요구가 높아지는 해양 시장의 엔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됨.

HD 현대중공업, KDDX 상세설계 입찰 참가...'보안감점' 가처분 신청 (아이뉴스 24)

<https://zrr.kr/Uzx1EF>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해짐.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방위사업청이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에서 법적 근거 없이 보안감점을 부당하게 연장 적용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려짐. 이번 KDDX 입찰에서도 보안감점(1.2점)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인 가운데, 방사청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최종 유죄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벌점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됨.

HD 현대중공업, 스웨덴 쇄빙전용선 건조 본격 추진 (뉴시스)

<https://zrr.kr/XXJqXV>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울산 본사에서 스웨덴 해사청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달 말 수주한 3억 4,890만 달러(한화 약 5,148억 원) 규모의 차세대 쇄빙전용선 건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해짐. 스웨덴 대표단은 아드와 스마트 조선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선박 건조 역량을 점검했으며, 양측은 발틱 해역의 극한 환경을 견딜 친환경·고효율 쇄빙선 건조를 위한 일정과 설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알려짐. 국내 조선소 최초로 해외 쇄빙전용선 시장에 진출한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스웨덴의 추가 발주 및 미국, 캐나다 등의 글로벌 쇄빙선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특수선 시장 입지를 확대할 전망으로 보도됨.

JP Morgan named as owner of five newbuildings inked at Samsung (TradeWinds)

<https://zrr.kr/jRoseQ>

미국 JPMorgan이 삼성중공업에 총 5척, 약 6억 6,200만 달러 규모의 선박 3건을 발주한 배후로 알려졌다 전해짐. 이번 계약은 2028년에서 2029년 인도 예정인 LNG 운반선 1척, VLGC 2척,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포함하며, 확정될 경우 JPMorgan의 올해 삼성중공업 누적 발주량은 총 12척, 약 16억 6,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전해짐. JPMorgan은 중국 다렌조선소에도 VLCC를 발주하며 선대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27척, 54억 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도됨.

한화오션, 차세대 스마트 함정 연구회 개최... AI 기술 총집결 (세계일보)

<https://zrr.kr/B0A0s2>

한화오션 주식회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제4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를 개최하고 AI 기반 미래 함정 기술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짐. 이번 연구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클라우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중심의 스마트 함정 디지털 전환 전략과 보안 체계 등을 발표했다고 알려짐. 또한 서울대학교와 한화시스템 주식회사의 발표를 통해 AI 기반 전산 설계 및 병력 절감형 스마트 배틀십 개념 등이 소개됐으며, 한화오션 주식회사는 해양 방산 시장 대응을 위해 매년 이 연구회를 운영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